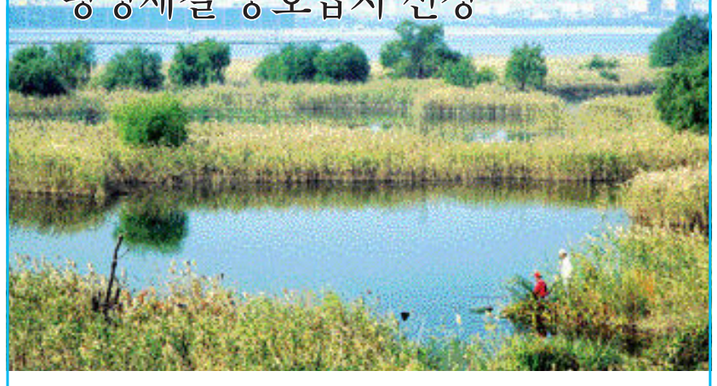
‘꼭 지켜야 할 자연 문화유산’ 광양제철 동호습지 선정



한국내셔널트러스트

광양제철 동호습지가 보존 가치가 높으나 훼손 위험이 큰 ‘꼭 지켜야 할 자연 문화유산’ 으로 선정됐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최근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전대상지를 공모한 결과 광양제철 동호습지를 비롯해 제주 우포, 경남 남해 갈대군락지 등 12곳을 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광양제철 동호습지는 광양제철 동측 해안부지 약 230만평에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슬래거 등을 매립하기 위해 조성됐다. 동호습지는 약 20여간 매립이 진행되면서 인근에 1만평 가량의 자연 습지가 조성됐고, 바다건너 경남 하동 갈사만 일대를 찾는 각종 철새들이 만조 때를 이용, 광양제철 동호안습지로 찾아든다. 각종 폐기물 및 오탁수 등의 오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희귀종인 저어새를 비롯, 도요·물떼새, 고니, 청둥오리 등 보호종 물새들이 자주 날아들고 있다. .

광양환경운동연합 박주식 사무국장은 “제철소가 내뿜는 공해에도 아랑곳 않고 매년 철새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면서 “산업폐기물처리장에 자연 조성된 습지야말로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는 산 교육장”이라며 보존가치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 운동은 시민의 자발적인 모금이나 기부·증여를 통해 보존 가치가 있는 자연자원과 문화 자산을 사들여 영구 보존하는 활동이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여수시 ‘콜센터 유치’ 난항

전용 건물 마련 차질…인센티브 예산 확보도 어려워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콜센터 유치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여수시는 20~30대 여성인력의 고용창출 기회를 확대하고, 원도심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09년 12월까지 대규모 콜센터를 유치하려 했으나 장소마련과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사업을 추진한 시는 당초 전남대 여수(국동)캠퍼스와 돌산청사 등 2곳에 각각 500석과 1천석 규모의 콜센터를 유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남대가 여수캠퍼스에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추진중에 있는데다, 돌산청사 역시 일부를 시립박물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중이어서 콜센터 전용 건물 마련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

시는 이에 따라 원도심권에 위치한 건물 가운데 콜센터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지만, 콜센터가 입주하기 위해서는 초고속 통신망 설치가 가능한 2층 이상의 단일건물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건물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콜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건물임대료 최대 10년 면제, 교육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할 계획이지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선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는 상태다.

시는 일단 시의회를 설득, 건물임대료 등 지원기준 개정을 골자로 하는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유치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개정이 이뤄진다면 건물을 확보하는 문제 등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유치대상 기업과 전문용역업체 등을 방문해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콜센터는 투자비용에 비해 고용효과가 다른 업종보다 비교적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 광역시 및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콜센터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순천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50석 규모의 관혼상제 전화상담 서비스 등을 하는 ‘엠보이스 콜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함정 승선 체험 여수해경이 올들어 여수와 순천지역 청소년과 어린이 3천715명을 대상으로 함정공개 및 승선체험행사를 실시했다. 지난 27일 수정동 해경전용부두에 정박한 해경함정을 승선한 여수 제일유치원생들이 함정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여수시-여수세무서 전국 첫 업무협약

민원인 이중방문 불편 없애

여수시와 여수세무서가 전국 최초로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여수시(시장 오현섭)와 여수세무서(서장 강성준)는 30일 오후 시청에서 각종 인·허가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그동안 민원인들은 인·허가, 등록, 신고를 필요로 하는 업종의 폐업 및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 때 시와 세무서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시와 세무서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인·허가 업종의 폐업신고 때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시에서 함께 접수키로 함에 따라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인·허가 사항만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은 폐업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과다하게 납부하는 피해도 막을 수 있게 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관내 음식업 등 모두 150여개 인·허가 업종에 종사하는 연간 1만5천여 명의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협약이 전국으로 확대돼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광양에도 ‘도깨비 도로’ 있어요

제주도보다 100m 더 길어 일대서 장승문화축제 열어

제 1회 광양도깨비도로 장승문화축제(추진위원장 서경식)가 중마동 청년회(회장 김홍원) 주관으로 지난 28일 광양시 중마동 도깨비 도로 〈사진〉일원에서 열렸다.

광양도깨비도로는 실제 측량결과 내리막길로 보이는 쪽이 2.86m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착시현상으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반대로 보인다.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진 제주시 노형동 도깨비 도로보다 길이가 100여m 더 긴 중마동 도깨비도로는 홍보부족으로 지역민들외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광양도깨비도로는 이 일대에 여러 형태의 장승을 세우고 크고 작은 문화행사를 갖는 등 지역민들에게 정서적인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번 축제는 장승깎기와 국악·바공연과 줄타기, 댄스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순천시 ‘승진후 명퇴’ 각서 파문

사무관 승진자가 써…일부 직원 용퇴 주장 논란

순천시의 한 지방 사무관이 승진을 하면서 ‘승진 후 1년만 근무하고 명예퇴직을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쓴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순천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1월 정기인사에서 면장으로 승진한 사무관 A씨(58)의 당시 인사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A씨는 당시 사무관(5급) 승진을 못하게 되면 그해 12월 정년을 하게 될 상황.

문제는 승진 서열 1순위였던 A씨가 인사 담당자의 요구로 ‘승진을 하면 12월까지 1년만 근무하고 명예퇴직을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는 것.

그러나 A씨가 2년이 다되도록 물러나지 않자 최근 일부 직원들이 당시 각서를 문제 삼으며 A씨의 용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A씨는 “당시 승진 서열 1순위로 청백봉사상까지 받았기 때문에 승진은 당연한 것”이라며 “각서의 내용도 모른채 인사 담당자가 쓰라고 해 서명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A씨의 각서를 받았던 직원은 “윗선으로부터 각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해 1년 뒤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각서를 받은 것 아니냐는 항간의 의혹을 뒷받침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정년이 남은 공무원에 대해 각서를 이유로 그만두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실직자 채용 등 합의서 성실 이행”

현대하이스코 협력사 “비정규직지회 사실 왜곡”

현대하이스코 협력사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실직자 채용 등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와 체결한 합의서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하이스코 협력사는 지난 5월 양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순차적으로 실직자들을 채용하고 있는데도 금속노조 등 비정규직지회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하이스코 협력사들은 “비정규직 지회가 문제삼고 있는 채용인원의 원직복직은 합의서 이행과는 무관하고 인원채용은 고유한 인사경영권”이라며 “비정규직회는 악의적 비방을 자제하기 바라며 앞으로 더욱 지역경제 발전과 합의서 이행을 성실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光州日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여 수	653-8444 (686-8584)	목 포	276-9200	나 주	332-5544
광 양	792-8111	무 안	452-8535	나주남부	334-6969
보 성	853-9700	해 남	534-5151	화 순	374-4423
순 천	746-8111	완 도	554-6677	장 성	392-7000
고 흥	833-9900	영 광	351-0055	담 양	383-8111
녹 동	842-2121	신 안	243-3758	영 암	473-2340
구 례	783-8111	진 도	543-0100	장 흥	863-8822
곡 성	362-8111	강 진	433-8355	광 산	944-0444
		함 평	324-8111	고 창	564-1919
				순 창	653-6155